

2025 대학별
수시 분석 13

서울시립대

종합II(서류형) 선발 확대·수능 최저 신설 자유전공학부 신설, 계열 분리 모집

2025학년 서울시립대 수시전형은 많은 변화가 있다. 우선 전형별 모집 인원이 달라졌다. 학생부교과전형인 지역균형선발은 전년(228명) 대비 39명이 감소한 189명을 선발한다. 반면 학생부종합전형인 종합 I (면접형)과 종합 II(서류형)은 각각 380명, 191명을 모집한다. 전년 대비 각각 12명, 111명 늘었다. 세부 평가 방식에도 변화가 있다. 지역균형선발은 진로선택 과목 반영 과목을 상위 3과목에서 전체로 바꾸었고, 종합 II(서류형)은 경영학부 외에는 수능 2개 영역 등급 합 5 이내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한다. 면접을 실시하는 종합 I (면접형), 기화균형전형 I, 사회공헌·통합은 면접 비중을 40%에서 50%로 높였다. 자유전공학부는 올해 처음으로 종합 I·II에서 모집하며 인문·자연 계열로 각각 14명씩을 선발한다. 수험생이 중요하게 살펴야 할 점을 서울시립대 입학관리과 한기호 전략팀장(대학혁신전문교수), 조경연 선임입학사정관에게 들었다.

취재 정나래 기자 lena@naeil.com

대학별 수시전형 분석 자료단

장지환 교사(서울 배재고등학교) 배대열 교사(대구남산고등학교)
강권일 교사(제주 삼성여자고등학교) 이재훈 교사(경기 한민고등학교)



Q 2024 대입 결과에서 나타난 가장 큰 특징은?

2024학년 수시전형에 큰 변화가 없었기에 전년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종합 I (면접형)의 경쟁률이 2023학년 17.94:1에서 2024학년 24.64:1로 급등했는데, 최종 등록자 기준 합격선은 큰 차이가 없었다. 경쟁률이 하락한 교과전형도 비슷하다. 단 계열별 지원자·합격자의 성적 차이가 벌어지는 추세다. 문·이과 통합 교육과정과 인문 계열 기피 현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인문 계열은 자연 계

열에 비해 합격선이 하락세다. 종합전형에서 졸업생의 지원이 크게 늘었다는 점도 눈에 띈다. 2022~2023학년 졸업생 지원 비율은 25.9%, 25.2%로 비슷했으나 2024학년엔 30.4%로 5% 가까이 상승했다. 다만 합격자 중 졸업생 비율은 9.6%로 전년(10.2%)과 큰 차이가 없었다. 종합전형이 재학생을 우대하진 않지만, 서류 평가 기준 자체가 재학생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올해도 졸업생 지원이 수시에서 대거 증가할 전망이다. 종합전형 합격자 중 졸업생 비율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Q 2025 수시전형에서 주목할 점은?

수시 모집 인원이 1천21명으로 전년(936명) 대비 86명 증가했다. 종합전형 모집 인원이 늘었기 때문에, 특히 종합 II (서류형)은 전년(80명)의 2배 이상인 191명을 선발한다. 모집 단위도 대폭 늘었다. 서류 100% 전형이라, 면접의 대체재로 2개 영역 합 5등급 이내라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한다. 최저 충족률은 70~80%로 예상된다. 단, 경영학부는 최저 기준이 없

다. 2023학년 종합Ⅱ(서류형) 도입 이래 지원·합격자의 역량과 성향을 확인했기에 학생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취지다. 종합Ⅰ(면접형)을 비롯, 기획 균형전형1, 사회공헌·통합은 2단계 면접 비중을 40%에서 50%로 높였다. 최저 기준이 없는 전형이라 원래도 상당했던 면접의 실질 영향력이 더 커질 전망이다. 자유전공학부가 종합전형에 진입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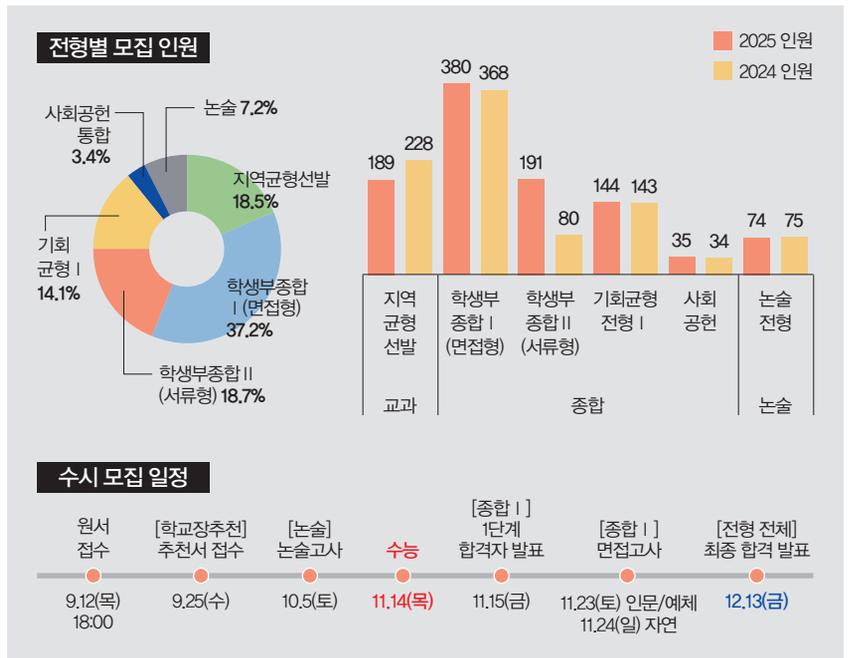
Q 인원이 증가한 자유전공학부는 종합전형에서 많이 선발한다. 어떻게 선발하나?

자유전공학부는 2025학년 수시에 46명을 선발하며, 이 중 절반 이상을 종합전형에서 모집한다. 계열별로 종합Ⅰ(면접형) 각 5명, 종합Ⅱ(서류형) 각 9명 등 총 28명을 모집한다. 자유전공학부는 입학 후 주도적인 진로 탐색과 학습이 중요한 모집 단위다. 관련 역량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 종합전형에서 다수 선발하게 됐다. 또 서울시립대는 전공별 인재상을 따로 안내할 만큼 종합전형에서 계열(전공) 적합성을 강조한다. 이런 특성을 고려하는 한편, 특정 계열 성향의 지원자가 몰리지 않도록 인문, 자연으로 나눠 모집한다. 평가 시 보다 넓게 계열 적합성을

살필 예정이다. 수시 요강에 안내된 자유전공학부 인재상에도 인문은 인문·사회과학 분야 소양을, 자연은 수학적 사고력과 과학적 소양을 강조한다. 계열에 적합하지 않은 과목을 선택한 지원자는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려울 것이다. 학교생활에 충실해 우수한 성적을 거뒀지만 교과전형 합격선엔 못 미치고 진로가 명확하게 학생부에 드러나지 않는 학생, 진로가 바뀐 학생이 많이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 입학 후 전공 선택엔 제한이 없

전형	전형명	전형 방법	수능 최저 학력 기준*								
			계열	국	확	미/기	영	사	과	최저	
교과	지역균형선발 (학교장추천제)	교과 100 ※교과별 추천 인원 10명	인문 자유전공(인문)	○	○	○		1		3합7	
			자연	○		○	○		1		
			자연2	○	○	○			1		
종합	종합Ⅰ (면접형)	[1단계] 서류 100(3배수) [2단계] 1단계 50+면접 50	없음								
	종합Ⅱ (서류형)	서류 100	계열	국	확	미/기	영	사	과	한	최저
	기획균형Ⅰ	[1단계] 서류 100(3배수) [2단계] 1단계 50+면접 50	없음								
	사회공헌· 통합	[1단계] 서류 100(4배수) [2단계] 1단계 50+면접 50	없음 없음								
논술	논술	논술 70+학생부 30									

※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의 국(국어), 확(확률과 통계), 미/기(미적분/기하), 사(사탐), 과(과탐), 한(한국사)을 각각 의미하며, '사/과'와 한국사의 숫자는 각각 응시 과목 수와 등급을 말함. '최저'의 '3합7'은 수능 4개 영역 중 3개 영역 합 7 이내라는 뜻.
※ 지역균형선발의 자연Ⅰ은 자연Ⅱ 제외 전 자연 계열 모집 단위, 자연Ⅱ는 환경원예학과, 건축학부, 교통공학과, 조경학과, 자유전공학부(자연). 세부 사항은 입학처 홈페이지에 게시된 요강 참조.



다. 융합전공학부 첨단융합학부 융합응용화학과 인공지능학과와 예체능 계열 외엔 입학한 모집 단위와 상관없이 원하는 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

Q 교과전형인 지역균형선발은 진로선택 과목 반영 방식을 변경했는데?

지역균형선발은 교과 100% 전형인데, 교과 성적 환산 시 공통·일반선택 과목 90%, 진로선택 과목 10%를 반영한다. 학교장 추천 전형이라 지원자층이 제한적이다. 진로선택 과목을 상위 3과목만 반영하니 대부분 A였다. 보다 의미를 부여하려 전 과목으로 확대했으나 변별력은 높지 않을 전망이다. 특정 과목에만 몰입했는지, 학교 수업 전반에 충실했는지 확인하는 지표가 될 것이다. 참고로 2026학년엔 교과 정성 평가를 10% 반영한다. 구체적인 방식은 고민 중이지만, 지원 계열 관련 과목 이수 여부를 살필 수 있다. 거꾸로 말하자면 올해가 100% 정량 평가를 하는 마지막 해다. 추천형 교과전형이라 주요 대학과 지원자가 겹치고, 올해 의대 및 첨단학과 증원으로 자연 계열을 중심으로 변수가 상당하다. 지난 3년간 최저 충족률이 평균 50% 내외임을 고려할 때 최저 기준을 충족한다면 기대 이상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

Q 종합전형은 학생부 평가 항목 축소 및 자기소개서 폐지 이후 서류 평가에서 눈에 띄는 점이 있나?

학생에게 폭넓은 선택권을 주기 위해 다양한 과목을 개설하는 고교가 크게 늘었다. 한데, 보통 4단위를 이수하는 과목을 2단위씩 쪼개어 과목 수를 늘리거나 전문 교과와 교양 과목의 비중을 높인 사례를 종종 확인한다. 이런 노력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대학은 특별히 달리 평가하지 않음을 강조하고 싶다. 보통의 교육과정 안에서도 학업 역량이 우수하고, 자기주도적으로 희망 계열(전공)에 맞는 과목을 피하지 않고 이수한 것만으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자기소개서 폐지의 아쉬움도 크다. 자기소개서만으로 합격하는 일은 없지만 학생이 스스로 자신을 설명하는 자료로 학생부를 보완했다. 2024학년 자기소개서가 폐지되며 대학은 이전보다 정보가 크게 줄어든 학생부만 보게 되면서, 파편화된 기록의 맥락을 파악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쏟고 있다. 그럼에도 한계가 있어 올해 확대한 종합Ⅱ(서류형)을 2026학년에 경영학부만 남기고 축소할 예정이다.

Q 올해 수시 지원자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교과전형 지원 자격이 있다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길 바란다. 올해 여러 변수로 최저 기준만 충족한다면 어느 때보다 합격 가능성이 높다. 특히 도시 관련 학과, 융합전공학부, 첨단융합학부는 서울시립대만의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어 적극 지원해보길 추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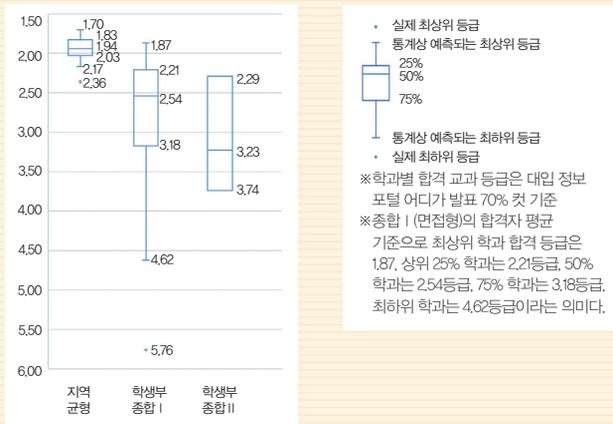
종합전형은 '인재상'을 눈여겨보아야 한다. 막연한 선입견으로 판단하지 말고, 내용을 곱씹어보라. 예를 들어 중국어문화학과는 중국어 실력을 요구한다고 여기기 쉬운데, 인재상을 보면 '기초 교과 성취도가 우수하고, 국어와 역사 교과의 소양이 뛰어난 학생' 등으로 기술돼 있고 중국어 관련 내용이 없다. 종합해보면 중국의 역사 문화 사회를 비판적으로 탐구하는 데 초점을 둔 학과임을 파악할 수 있다. 세무학과도 타 대학의 상경 계열처럼 수학을 강조하겠다 싶겠지만 인재상에는 '수학'이란 단어가 없다. 사회문제 전반과 조세 제도를 이해·활용할 수 있는 통합적인 사고력과 윤의식을 갖춘 학생을 선호한다. 이런 사실을 고려하면 보다 자신에게 적합한 학과를 찾을 수 있을뿐더러 진로 설계와 전략적인 지원이 가능하다. 대학이 제공하는 자료와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대로 활용하길 권한다.

● 2024 수시전형 및 모집 단위별 경쟁률

상위 5			하위 5	
지역균형선발	종합 I (면접형)	종합 II (서류형)	지역균형선발	종합 I (면접형)
인공지능학과(2) 22.5	융합응용화학과(7) 60.57	도시사회학과(3) 30.33	세무학과(11) 4.91	철학동아시아문화학전공(2) 11.5
자유전공학부(3) 17	생명과학과(9) 56	국제관계학과(6) 22.33	도시행정학과(7) 5	세무학과(19) 11.58
중국어문화학과(3) 16.33	사회복지학과(11) 40.55	경영학부(7) 17.34	행정학과(13) 6	도시공학국제도시개발학전공(2) 12.5
공간정보공학과(4) 15.5	스포츠과학과(8) 40.38		국어국문학과(3) 7	도시공학도시부동산기획 경영학전공(2) 12.5
통계학과(5) 14.8	기계정보공학과(10) 39.9		신소재공학과(5) 7.2	교통공학과(3) 12.67

※ 모집 단위(모집 인원) 경쟁률.

● 2024 수시전형 및 모집 단위별 입시 결과



● 교과 등급 상위 5개 학과(70% 컷 기준)

	지역균형선발	종합 I (면접형)	종합 II (서류형)
1	화학공학과 1.7	인공지능학과 1.87	도시사회학과 2.29
2	신소재공학과 1.71	국사학도시역사 경관학전공 2.08	국제관계학과 3.23
3	융합응용화학과 1.72	신소재공학과 2.08	경영학부 3.74
4	통계학과 1.76	환경공학부 2.14	
5	전자전기컴퓨터공학부 1.76	화학공학과 2.16	

● 교과 등급 하위 5개 학과(70% 컷 기준)

	지역균형선발	종합 I (면접형)
1	토목공학과 2.36	기계정보공학과 5.76
2	행정학과 2.36	철학과 4.62
3	사회복지학과 2.17	영어영문학과 4.52
4	도시행정학과 2.12	사회복지학과 4.49
5	중국어문화학과 2.11	도시사회학국제도시개발학전공 4.41

● 입학 후 전공 선택 모집 단위 수시 모집 인원

모집 단위	지역균형 선발	종합 I (면접형)	종합 II (서류형)	기회 균형	사회공헌· 통합	정시
자유전공학부(인문)	4	5	9	4	1	16
자유전공학부(자연)	4	5	9	4	1	16

※ 정시 선발 인원은 입학처 문의 결과이며, 세부 사항은 추후 정시 요강 참조.

자문 교사의 서울시립대 2025 수시 합격 Advice

교과전형인 지역균형선발전형의 경쟁률은 2023학년 18.87:1에서 2024학년 9.60:1로 낮아졌다. 대입정보 포털 어디가에 발표된 70% 컷을 보면 2023학년 1.6~2.1등급에서 2024학년 1.7~2.36등급으로 소폭 하락했다. 올해는 선발 인원 감소와 비교적 높은 최저 기준(3할 7)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또 교과 성적 산출 시 진로선택 과목을 모두 반영해 교과 성적 환산점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음을 염두에 두고 지원해야 한다.

종합전형 중 면접이 진행되는 종합 I (면접형), 기회균형 I, 사회공헌·통합은 학업 역량 35%, 잠재 역량 40%, 사회 역량 25%로 서류 평가와 면접을 진행한다. 한편 서류 100%로 선발하는 종합 II (서류형)은 학업 역량 30%, 잠재 역량 50%, 사회 역량 20%로 평가하기에 유리한 전형을 잘 판단해야 한다. 입학처 홈페이지의 학교별 인재상과 <UOS 매거진>을 읽어보고, 평가 사례를 바탕으로 본인의 학생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어디가에 공개된 70% 합격선은 종합 I 1.87~5.76, 종합 II 2.29~3.74이다. 합격생 간 편차가 크기에 지원자가 재학 중인 고교의 사례를 반드시 살펴볼길 권한다. 대학 알리미에 공시된 2024학년 서울시립대의 종합전형 합격자 고교 유형별 비율은 일반고 66.29%, 과학고 2.7%, 외고·국제고 23.27%, 특성화고 0.22%, 자사고 3.15%, 자공고 4.04%다. 합격자 고교 유형에서 외고·국제고 비율이 높다는 점, 자연 계열 내 등급 차가 크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경쟁률 변화 추이도 확인해야 한다. 2023~2024학년 종합 I (면접형) 경쟁률은 17.94:1에서 24.64:1로 급등해 1단계 합격을 위한 서류 평가가 더 중요해졌다.

논술전형은 최저 기준이 없어 논술고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